

“나의 살던 고향은” 연출 맡으며 ‘연극의 고향’으로 돌아왔죠”

소극장 ‘드라마스튜디오’ 이끌던 강남진씨 광주시립극단 작품 들고 후배들과 다시 만나 “평범한 일상 통해 하루하루 소중한 느끼길”

1985년 광주 수창초등학교 인근에 소극장이 문을 열었다. 연출가 강남진(59·백제예술대 교수)씨가 대표를 맡은 ‘드라마 스튜디오’다. 10여년간 이 곳은 연극의 옹골같은 곳이었다. 1년이면 7~8개 작품이 무대에 올라갔다. 한 작품이 공연될 때, 다른 배우들은 다음 작품을 준비하며 바빠 움직였다. 숙식을 함께하며 아침부터 밤까지 연극만 생각하던 시절이었다. 오뎅국과 마가린, 고추장은 늘 상 먹던 음식이었다. 광주에 많은 배우들은 이곳에서 꿈을 키웠다.

아쉽게도 드라마 스튜디오는 1994년 강 씨가 백제예술대 교수로 자리를 옮기면서 활동이 주춤했다. 강 씨 역시 학교에 매이면서 광주 연극판과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다.

강 씨가 광주 연극인들과 다시 뵈었다. 광주시립극단(예술감독 박윤모)의 정기 공연 작품 ‘나의 살던 고향은’(14일 오후 4시·7시30분, 15일 3시·7시, 16일 3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을 통해서다. 지난 2011년 드라마스튜디오의 ‘오래전’을 연출한 적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광주 연극판에서 작업하는 건 20여년만이다.

오랜만의 귀향엔 드라마스튜디오에서 한술밥을 먹었던 배우 윤희철, 이기인, 이현기, 윤미란씨도 함께한다. 이들을 만나 오랜 인연과 이번 작품에 대해 들었다.

“후배들과 오랜만에 작업하다 보니 아

주 새롭고 즐겁다. 처음 보는 젊은 배우들도 아주 열심히 한다. 솔직히 처음에는 외부에서 객원 연출가로 들어온 느낌이었다. 연습기간이 두달 가까이 되면서 지금은 심장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느낌이다. 후배들에게 정이 간다. 전화하고 문자 하고 싶고 그러다.(웃음)”(강남진)

강 씨는 카리스마 있는 연출자로 꼽혔다. 후배들은 지금은 많이 여유로워지고 기가 빼졌다며 농담을 건넸다.

“평장히 스파르타 식으로 배웠다. 쓰레파와 주전자로 많이 맞았다.(웃음) 지금은 연출자들이 연기 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많지만 당시는 어떻게든 배우가 끌어내야한다며 답을 주지 않고 연기자가 풀어나가도록 했다. 고만하며 내 것이 되도록 만드는 것인데, 그게 배우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다.”(이기인)

‘나의 살던 고향은’은 1938년 초연 후 전 세계에서 매일 공연중인 손톤 와일더 원작의 ‘우리 읍내’(Our Town)를 강 씨가 각색했다. 1930년대 미국의 가상의 마을은 1970년대 광주 송정리로 바뀌었다.

“평범한 일상을 통해 하루하루 소중한 일깨워주는 원작을 무대에 올리고 싶었지만 배경이 외국이라는 게 걸렸다. 오늘 날의 관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배경을 70년대로 잡고, 정감 있는 마을이면 좋겠다 싶었다. 광주 토박이인 나에게 떠오른 게 송정리였다. 젊은

주인공 이름이 영화와 철수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보편적 삶과 잔잔한 일상의 감동을 주고 싶다.”(강남진)

송정리의 평범한 일상들이 주로 보여지는 작품은 특별한 줄거리는 없다. 하지만 “살면서 그 진가를 몰랐던 이승이여, 이젠 안녕, 살면서 자기 삶을 제대로 깨닫는 인간이 있을까요? 때 순간마다요”라는 영화의 대사처럼 평범한 일상에서 만나는 인생의 가치를 이야기한다.

“연극이 쌍둥이의 탄생에서 인간의 죽음으로 끝난다. 우리의 일상은 특별하지 않지만 삶에서 소중하지 않은 건 없다. 흠드라마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간결하게 들려주는 작품이다.”(이현기)

강씨는 광주 서중 3학년 시절, 광주일고 선배들이 무대에 올린 작품에서 여자역을 맡은 게 연극의 출발이었다. 이후 조선대를 거쳐 극단 시민과 예후 등에서 활동했고 전국연극제에서 ‘지킴이’로 연기상을 받기도 했다.

“출연배우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품을 제작하는 게 참 좋다. 연기자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힘들다. 모든 연기자들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봐 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연출자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강남진)

작품에는 3인조 재즈밴드 등장, 작품의 강약을 조절하고 분위기를 돋운다.

“과거를 회상하는데 라이브 음악은 감성을 자극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기승을 후배들이 느끼도록 줄 수 있을 거다. 관객들에게도 색다른 경험일 것이다. 작품의 템포가 느려지지 않도록 출연배우들과 다듬고 있다. 관객들이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다.”(강남진) /김미은기자 mekim@



광주시립극단의 연극 ‘나의 살던 고향은’ 연습실에서 포즈를 취한 이현기·윤미란·강남진·이기인·윤희철씨. <광주시립극단 제공>

시립극단 ‘나의 살던 고향은’ 14~16일 광주문예회관

미국 손톤 와일더 폴리처상 ‘우리 읍내’ 1970년대 광주 송정리 배경으로 각색

미국 현대 문학의 걸작으로 꼽히는 손톤 와일더 폴리처상 수상작품 ‘우리 읍내’를 1970년대 광주 송정리를 배경으로 각색했다.

작품은 특별하거나 극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대신 평범한 마을,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그린다. 쉼 새 없이 이어지는 하루 속에서 잔잔한 일상의 감동이 펼쳐지는 작품이다.

1971년 송정리 읍내의 평범한 아침이 시작된다. 신문·우유 배달부가 골목을 다니며 아침을 깨우고, 시골 의사 박준씨네 집과 송정뉴스 편집장 조동팔씨네 집 아이들도 하루를 시작한다. 양 집안

의 아이들인 영화와 철수도 티격태격하며 자라나고 세월은 지나간다.

무대감독이 등장해 무대 위에서 직접 관객과 소통하며 극을 이끌어 나가며 3인조 재즈 밴드가 함께한다.

송정우씨가 무대감독 역을 맡았으며 정경아·고난영·강유미·한중근·이명덕·정일행·손다희·최유정·김현규·김강철·신지영씨 등 20여명의 배우가 출연한다. 김이식(보컬), 김희애(피아노), 김준영(콘트라베이스)씨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티켓 가격 1만원(학생 50%). 문의 062-511-275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화 미 비 판 다 우 여



‘기다림’

대담미술관 23일까지 정경자전

대담미술관(관장 정희남)은 오는 23일까지 원로작가 정경자 화백을 초대해 ‘오직 한 길’전을 개최한다.

일본 교토에서 태어나 일본과 프랑스에서 그림을 공부한 정 화백은 동·서양 미술의 선, 색, 형 등을 접목해 음악적인 멜로디와 리듬감이 화모니를 이루는 화풍을 형성했다. 이런 화풍은 그를 ‘색채의 마술사’로 불리게 했다.

“사람의 마음을 안락한 기분으로 만드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는 마티스의 말을 좋아한다는 정 화백은 “그림으로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음악을 보여주고 싶

다”고 말한다.

그의 작품에서는 다양한 색채들이 불협화음이 없는 화모니를 이룬다. 흑자는 이를 ‘보는 음악’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때로는 조화를 이루는 색들이 춤을 추는 것과 같이 비현실적인 공간을 구성한다. 여러 가지의 색이 정명하게 우러나 감성자로 하여금 미묘한 색의 세계로 빠져들게 한다.

도쿄 여자미술대학, 프랑스 파리 아카데미 드 랑그랑소미에르 등에서 공부한 정 화백은 일본과 프랑스 등에서 수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일본에서 터너상, 오사카 시장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파리 살롱도톤느 회원이다. 문의 061-381-0082. /김경민기자 kki@

국내 대표 데스메탈 밴드 ‘사일런트 아이’ 광주 공연

내일 ‘보헤미안’서

멜로디 데스메탈 밴드 ‘사일런트 아이’(Silent Eye) 광주 공연이 8일 오후 6시30분 광주시 동구 문화 공간 보헤미안에서 열린다.

1997년 결성된 ‘사일런트 아이’는 국내의 대표적인 데스 메탈 밴드로 지금까지 2장의 정규 앨범과 4장의 EP를 발매했다.

세번째 정규 앨범 발매 기념으로 진행중인 전국 투어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광주 공연에서는 파워풀한 사운드, 테크닉 넘치는 화려한 기타의 선율과 키보드 연주가 조화된 곡들을 들려준다.

‘크래쉬’의 기타리스트 윤두병이 새로이 결성한 ‘The Choppers’가 게스트로 함께 하며 광주의 대표 익스트림 메탈 밴드 ‘The Injured Blossom’도 무대에 선다.

티켓 가격 2만원. 문의 062-416-1006 /김미은기자 mekim@

젊은 무용가 초청 공연 내일 광주문예회관

지역 무용계 젊은 안무가와 무용수들을 위한 무대가 마련된다.

광주무용협회(회장 김미숙)는 8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2014 젊은 무용가 초청 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에서는 패기와 열정으로 똘똘 젊은 무용인들의 창의적인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른다.

‘보이지 않는 상처’(박태영·서지영),

‘Here and after’(김진아), 발레 ‘레이몬다’ 중 ‘아다지오’(김윤아), ‘나는 간다 나의 길요’(이찬미), ‘Paranoia’(김재식), ‘살풀이’(김다은), 발레 ‘파키타’(배운정), ‘한영숙류 살풀이’(이호준), ‘Shout’(김민경), ‘그리워하다’(김연정), ‘잔상’(최지은), ‘달빛에 길을 묻다’(곽운정), ‘논개’(임해진) 등 20여 작품이 공연된다. 문의 062-613-834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 무형문화재 1호 이순자 선생 초청

전통문화관, 내일 판소리와 전통 가무악 공연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에서 오는 8일 판소리와 전통 가무악 공연이 펼쳐진다.

이날 오후 3시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는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호 남도판소리 예능보유자 이순자(사진) 선생을 초청해 ‘가을바람에 소리를 엮다.’ 공연이 열린다.

전라도 대표민요 ‘육자배기’를 시작으로 ‘살풀이’, 국악가요 ‘배 띄워라’, 대금과 아쟁의 ‘산조병주’, 판소리 춘향가 중 ‘만첩정산’에 이어 민요 ‘남원산성’을 선보인다.

명장 이순자 선생은 광주 출생으로 1963년 정광수 선생으로부터 사사를 시작해 한애순, 성장순 명창에게 춘향가, 흥보가, 심청가를 전수받았다. 1995년 남원출향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1월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호 남도판소리 예능보유자로 지정됐다.

이번 공연은 장영한의 사회로 진행되며 광주시립극단 단원과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들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무료 공연. 문의 062-232-1501. /오광록기자 kroh@



(주) 대원여행사
062)526-7000
www.daewontour.com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대원빌딩 1층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광주역 062)525-4835 광주송정역 062)941-3278

기차여행

주요선 KORAIL 한국관광공사

11월 15일(토)	당일 기차여행	11월 21일(금)	무박2일 기차여행	12월 5일(금) 철원	무박2일 기차여행	12월 24일(수)	무박2일 기차여행
모세의 기적 제부도·수원화성·수원행궁		부산 해운대·이기대·자갈치시장		도피안사·고석정·백마고지·제2땅굴		남이섬·춘천	
시간	일 정	시간	일 정	시간	일 정	시간	일 정
08:20	광주송정역 출발	23:35	광주역 출발(광주송정역 경유)	11:50	광주역 집결 후 출발	11:50	광주역 집결 후 출발
12:09	수원역 도착 후 출발	06:00	부산 송정역 도착 후 출발	07:00	신탄리역 도착 후 출발	06:27	가평역 도착 후 출발
13:00	한국판 ‘모세의기적’ 제부도 / 수원화성(연무대) / 수원행궁 관광	06:20	용궁사/해운대/동백섬/APEC누리마루/이기대공원둘레길/자갈치시장 관광	07:30	백마고지/노동당사/도피안사/인보관광(제2땅굴)/고석정 관광	07:00	남이섬/김유정 문학촌/춘천 소양강댐/춘천 명동 먹거리 자유관광
19:25	수원역 출발	17:22	부산역 출발	15:30	신탄리역 출발	16:18	춘천역 출발
23:04	광주송정역 도착	22:59	광주역 도착	22:00	광주역 도착	22:14	광주역 도착
성인 85,000원~	경노 82,000원~	성인/경노/청소년 69,000원~	소아 65,000원~	성인/경노 89,000원~	소아 85,000원~	성인/경노/청소년 85,000원~	소아 79,000원~